

『天槎大觀』의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考察

— 山東 陸路 區間을 中心으로 —

李 聖 炯*

<目 次>

- | | |
|------------------------|--------------------|
| I. 緒論 | IV. 『天槎大觀』의 敘述上 特徵 |
| II. 1624年 冬至使行과 『天槎大觀』 | V. 結論 |
| III. 『大明一統志』의 受容樣相 分析 | |

<국문 초록>

少菴 金德承(1595~1658)의 1624년 동지사행은 정기사명의 수행이 주목적이었는데, 이때 少菴은 清廉無慾한 태도로 칭송을 받았다. 圖本과 圖說로 구성된 『天槎大觀』은 1625년 2월 하순에 會同館에서 저술됐는데,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했다. 다만 말미의 ‘前後航海路程’은 『通文館志』를 참고해서 부연한 내용이다.

『天槎大觀』의 『大明一統志』 수용양상을 분석해 보면, 우선 登州府는 45개의 항목 중에서 4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는데, 登州府를 ‘神仙·蘇軾의 文學’과 연관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인용된 내용 중에서 誤記나 通假 사례가 확인되고, 인용과 건문의 서술상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萊州府는 65개의 항목 중에서 52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는데, 萊州府는 유학과 연계된 서술의 비중이 높는데, ‘東萊書院’에 대한 서술 누락은 芻論으로 추정된다. 또한 『天槎大觀』이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폭넓게 참고했던 사례도 확인된다.

靑州府는 90개의 항목 중에서 7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는데, 靑州府는 齊의 중심지로서 그 고적에 대한 서술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독서경

* 公州大學校 兼任教授 / great-one@hanmail.net

힘으로 동명의 장소인 ‘葵丘’를 혼동하여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夷齊廟’처럼 중요한 대상은 여러 지역의 내용을 보충하여 서술 비중을 높였다.

濟南府는 124개의 항목 중에서 93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는데, 濟南府는 명승과 절경이 많아서 풍경시의 인용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풍부하였다. 또한 ‘大明湖’처럼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 일부 다른 내용이 혼재되는 사례가 보여서 『天槎大觀』이 충분한 교감을 거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天槎大觀』의 서술상 특징으로, 우선 도본의 설명이 용이하도록 시선과 동선을 고려하여 서술되었다. 다음으로 漢族 중심의 문명론이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지리정보의 보장을 위해서 패루와 교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天槎大觀』처럼 도본과 도설로 구성된 燕行錄 중에서 壺亭 鄭斗源(1581~1642)의 『朝天記地圖』가 『天槎大觀』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청 교체기 해로 연행록 중에서 『天槎大觀』처럼 지리지적 서술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登州 노정을 왕환했던 연행록으로 한정되는 특징이다.

【주제어】 少痊, 金德承, 天槎大觀, 大明一統志, 航海朝天圖, 朝天記地圖, 燕行錄

I. 緒論

본고는 明清 交替期 海路 燕行錄인¹⁾ 金德承(1595~1658)의 『天槎大觀』 중 山東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과 그 서술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金德承의 字는 可久, 號는 少痊이며, 본관은 金海이다. 少痊은 어려서

1) 이하 ‘明清 交替期 海路 燕行’은 ‘海路 燕行’으로 약칭하는데, 관련 명칭은 이에 준하여 약칭한다. 아울러 明으로의 사행은 주로 ‘朝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 중국관련 사행을 보편적으로 ‘燕行’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현재 학계의 분위기를 수용하고, ‘朝天’보다 가치중립적이며, 압축적인 의미를 갖는 ‘燕行’을 ‘對明 使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부터 총명이 뛰어나 經史 이외에도 韻書를 연구하여 漢語는 배우지 않고도 하였다. 또한 천문역법과 諸家書에도 통달하였다.

少菴은 光海君 9년(1617)에 소과에 합격하고, 光海君 11년(1619)에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副正字에 서임된 이후로 著作·博士·典籍·刑曹佐郎·工曹佐郎·持平·慶尙都事·正言兼漢學教授·海運判官·戶曹正郎·文學·弼善·掌令·獻納·軍器寺正·公州牧使·掌樂院正·延安府使·尙衣院正·司成·司僕寺正·軍資監正·襄陽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한어 능력이 출중하여 仁祖 6년(1628) 이후 오랫동안 한학교수로서 생도를 지도했다.²⁾

少菴은 천성이 바르고 엄숙하였으며, 학식은 해박하고 문장은 출중하였는데, 이러한 성품과 역량을 바탕으로 白洲 李明漢(1595~1645)·花浦 洪翼漢(1586~1637)·晴沙 高用厚(1577~1648)·商谷 姜瑜(1597~1668)·無谷 尹絳(1597~1667) 등과 교유했다.³⁾ 또한 그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 승명을 구하려 하지 않았는데, 言議를 굽힌 바가 없었기 때문에 40여 년간 관직생활을 했지만, 높은 직위에 오르지는 못했다.⁴⁾

少菴은 1624년에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선발되었는데, 당시 경유한 지역을 圖本과 그에 대한 圖說로 구성된 『天槎大觀』을 저술했다. 그 내용을 보면 『大明一統志』를 근간으로 하고, 少菴의 전문이 부연되었다.

『大明一統志』는 明의 李賢 등이 1461년에 만든 90卷 60冊의 활자본 지리지로, 지역에 따라 建置沿革·郡名·形勝·風俗·山川·土產·公署·學校·書院·宮室·關梁·寺觀·祠廟·陵墓·古蹟·名宦·流寓·人物·列女·仙釋 등의 항목으로 분

2)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권7, 「官職典故」(諸司), 「司譯院」, “金德承位望在中下而每兼漢學教授, 以其能漢語也. …漢學兼教授, 無論名望有無, 弼擇解漢語者, 使教習生徒. 如金德承雖非極望, 久兼教授, 其啓下文書, 例曰曉解漢語.”

朴世堂, 『少菴公文集』 권2, 「墓誌」, “自戊辰, 常兼漢學教授, 以其能於職也.”

3) 少菴의 인척관계를 살펴보면, 少菴은 少陵 李尙毅(1560~1624)의 사위로,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아들인 玄洲 李昭漢(1598~1645)과 동서지간이다. 宜拙 南一星(1589~1650)은 정사였던 龜沙 權啓(1574~1650)의 사위인데, 아들이 藥泉 南九萬(1629~1711)이고, 사위가 西溪 朴世堂(1629~1703)이다. 少菴은 西溪와는 먼 사돈관계였는데, 후에 서계는 少菴의 墓誌를 찬술했다.

4) 이상 少菴의 생애는 『少菴公文集』 권2에 편재된 少菴의 ‘行狀’과 ‘墓誌’를 요약한 것이다.

류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조선에는 燕山君 1년(1495)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었지만,⁵⁾ 成宗 4년(1473)의 기록에서 『大明一統志』가 인용되고 있고,⁶⁾ 成宗 11년(1480)에는 三灘 李承召(1422~1484)가 北京의 書肆에서 『大明一統志』를 구입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⁷⁾ 또한 『東國輿地勝覽』의 체제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⁸⁾ 이를 통해 『大明一統志』는 간행 직후부터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의 인사들에게 많이 읽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계의 해로 연행에 대한 연구 성과는 芹田 安璈(1564~?)⁹⁾·楸灘 吳允謙(1559~1636)¹⁰⁾·花川 趙澱(1568~?)¹¹⁾·敬亭 李民宥(1570~1629)¹²⁾·竹泉 李德洞(1566~1645)¹³⁾·花浦 洪翼漢(1586~1637)¹⁴⁾·沙西 全湜(1563~

5) 『燕山君日記』 권6, 1年 6月 19日(庚午), “天使, 令頭目二人, 獻大明一統志及綱目通鑑. 王, 令承旨權景祐, 往謝之.”

6) 『成宗實錄』 권33, 4年 8月 14日(癸酉), “禮曹啓 … 臣等參詳歷代祭風雲師日及方位各異, 非徒取法爲難. 洪武禮制 則亦是州縣之制, 若諸司職掌及皇明一統志記皇城壇廟之制, 而竝以風雲雷雨, 合祭一壇.”

7) 李承召, 『三灘先生集』 권8, ‘次北京八景詩’, “予到北京, 求買大明一統志, 得一件于書肆. 披閱之餘, 見諸學士北京八景詩. 溫柔雅麗, 有古作者之遺音. 予塊處一館, 動有拘礙, 未得跬步出門外. 其於八景, 雖未能足履而目擊, 然因詩以求其風景, 則亦可彷彿其萬一. 遂次韻以攄其志.”

다만 『大明一統志』는 원래 私的 購買는 금지된 책이었다. 中宗 29년(1522)에는 譯官 金利錫이 『大明一統志』를 書肆에서 구입한 사실이 主客郎中 孫存仁에게 적발되면서, 조선도 門禁을 엄격히 적용받는 발미가 되었을 정도였다.(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권5, 「事大典故」, ‘使臣’, “陪臣到燕, 舊無防禁, 嘉靖初年, 譯士金利錫, 踞坐書肆要買大明一統志. 主客郎中孫存仁, 適赴早衙, 取見其而觀之, 驚曰, 此非外人所當買也. 因閉館門, 俾本國人一切不得出入, 遂成故事.”)

8) 金宗直, 『佔畢齋文集』 권2, ‘輿地勝覽跋’, “成化二十一年三月, 上命承政院, 召今平安道觀察使臣成倪, 忠清道觀察使臣蔡壽泊臣宗直, 出示宣城府院君臣盧思慎等所進東國輿地勝覽五十卷, 仍傳曰 … 卿等, 宜更讎校槩括, 期至於精當, 其凡則, 一以大明一統志爲法.”

9) 허경진·최해연, 「명청교체기 최초의 수로조천록-안경의 『가해조천록』」, 『중국학논총』 34집, 2011;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韓國漢文學研究』 第43輯, 2009.

10) 정영문, 「오윤겸의 사행일기 연구」, 『온지논총』, 2016.

11) 劉寶全, 「花川 趙澱의 燕行과 한시 창작」, 『東方漢文學』 第52輯, 2012.

12) 박경은,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 『한문교육연구』 15집, 2000.

1642)¹⁵·雪汀 李屹(1568~1630)¹⁶·淸陰 金尙憲(1570~1652)¹⁷·東岳 李安訥(1571~1637)¹⁸·壺亭 鄭斗源(1581~1642)¹⁹·無住 洪鏞(1586~1646)²⁰·潛谷 金埴(1580~1658)²¹·雪海 李晩榮(1604~1672)²² 등 개별 여행록을 중심으로 문학적 특질과 의의를 규명한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편의 해로 여행록을 대상으로 특정한 소재에 대한 표상성을 고찰하기도 했다.²³ 역사방면의 연구는 해로 노정에 대한 정보와 현황의 규명을 시도하거나,²⁴ ‘使行記錄書’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가 시도되었다.²⁵ 최근에는 해로 여행록의 관광학적 연구도 시도되면서 그 범주가 넓혀지고 있다.²⁶

-
- 13) 조규익, 『죽천행록』의 사행문학적 성격, 『국어국문학』 129, 2001.
 - 14) 최윤정, 『명청교체기 조선 문사의 사행체험』, 『한국고전연구』 11집, 2005.
 - 15) 조창록, 『전식의 사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동방한문학』 46집, 2011.
 - 16) 이정숙, 『설정 이홍의 『조천일기』 구두점과 주해 연구』, 청운대학교(석사), 2010; 崔昌源, 『雪汀先生朝天日記』에 나타난 使臣들의 行蹟, 『中國語文學論集』 第67號, 2010.
 - 17) 황만기, 『청음 김상헌 『조천록』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43집, 2009.
 - 18) 배주연, 『명청교체기 조선 문사 이안눌의 명 사행시 연구』, 『비교문학』 38집, 2006.
 - 19) 서지원, 『鄭斗源의 <朝天記地圖>에 나타난 대외인식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제17집, 2015; 임영걸, 『壺亭 鄭斗源의 『朝天記地圖』 연구』, 성균관대(석사), 2011.
 - 20) 조창록, 『1632년의 해로사행과 洪鏞의 『朝天日記』』, 『溫知論叢』 第42輯, 2015.
 - 21)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 여행록』, 『韓國實學研究』 제9집, 2005; 이영춘, 『명자호란 전후의 조선명청 관계와 김육의 『조경일록』』, 『조선시대사학보』 38집, 2006; 김영숙, 『명말의 중국사회와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 『명청사연구』 31집, 2009.
 - 22) 조창록, 『1636년의 해로 사행과 李晩榮의 『崇禎丙子朝天錄』』, 『인문과학』 제47집, 2011.
 - 23)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제15집, 2015; 조규익, 『使行路程으로서의 登州, 그 心象空間의 性格과 意味』, 『어문연구』 제38집 4호, 2010.
 - 24) 박현규, 『17세기 전반 대명 해로사행의 운향과 풍속 분석』, 『韓國漢文學研究』 제48집, 2011;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대명 해로사행에 관한 행차 분석』, 『韓國實學研究』 제21집, 2011.
 - 25) 정은주, 『명청교체기 대명 사행기록화 연구』, 『명청사연구』 제27집, 2007.

『天槎大觀』은 해로 여행기의 저작이자, 지리지의 성격이 뚜렷한 여행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天槎大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해로 여행록이 『大明一統志』를 적극 참고했다는 선행연구의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용양상과 그 특징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天槎大觀』을 대상으로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당시 조선 지식인의 지리인식 양상과 그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범위를 山東의 육로 노정으로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II. 1624年 冬至使行과 『天槎大觀』

1. 1624년 冬至使行的 概觀

누르하치[老兒哈赤, 1559~1626]는 1616년에 後金을 건국하고, 점차로 그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後金은 1618년에는 撫順을 함락했고, 1619년에는 朝明 聯合軍을 ‘薩爾滸 戰鬪’에서 패퇴시켰으며, 1621년에는 遼陽과 瀋陽 등 요동의 전략적 요충지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요동 구간 여행로가 차단되었고, 해로를 경유하는 새로운 여행로가 개통되었다.

당시 최초의 해로 여행은 明神宗의 국상에 파견되었다가 해로를 통해 귀국하던 進香使 朴彝敍(1561~1621)와 서장관 柳澗(1554~1621) 일행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불행히도 鐵山嘴 부근 바다에서 익사했다.

26) 송기현, 「이홍의 여행과 여행록 조천일기의 관광학적 고찰」, 『관광산업연구』 제3권 1호, 2009.

얼마 뒤에 明光宗의 대고 때문에 파견된 陳慰使 康昱(1558~1621)과 서장관 鄭應斗(1557~1621)도 해로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이들이 해로 연행에서 빠지려고 뇌물까지 동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²⁷⁾ 1621년에 해로 연행을 다녀왔던 芹田이 후손들에게 문신이 되지 말라고 유언했던 사실은 해로 연행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²⁸⁾

少菴이 참여했던 동지사행은 성절사행을 겸했는데, 정사는 龜沙였고, 서장관은 원래 花浦였다. 그런데 앞서 출발했던 주청사의 서장관 湖洲 蔡裕後(1599~1660)가 병으로 체직되면서 花浦로 대체되었고, 공석이 된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少菴이 선발되었다.²⁹⁾ 少菴은 10여 일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연행단에 합류한 뒤에 사명을 수행했다. 龜沙와 花浦가 4월에 동지사로 선발되어 3개월 정도 연행을 준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급박한 일정이었다.

少菴의 동지사행 전까지 조선의 주요 외교 현안은 仁祖의 책봉문제였다. 仁祖反正 직후 조선은 3차에 걸쳐 책봉을 위한 주청사를 파견하여, 1624년 3차 주청사행에서 仁祖의 왕위를 인정하는 詔使 파견이 결정되면서, 책봉문제가 마무리 되었다. 湖洲는 3차 주청사의 서장관이었는데, 주청사행의 추이를 살펴볼 때 3차 주청사행도 해로 노정의 위험과 더불어 미진한 책봉 문제를 완결지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연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少菴의 행장에서 당시 해로 연행의 위험한 환경과 서

-
- 27) 『光海君日記』 권164, 13年 4月 13日(甲申), “赴京使臣朴彞敘柳澗, 回自京師, 遭風漂失沒. 其後滄死時不還. 時, 遼路遽斷, 赴京使臣, 創開水路, 未諳海事, 行至鐵山嘴, 例多敗沒. 使臣康昱書狀官鄭應斗等, 亦相繼溺死. 自是人皆規避, 多行賂得免者云.”
- 28) 허경진·최혜연, 「명칭교체기 최초의 수로조천록」, 『중국학논총』 34집, 2011, p.129 참조.
- 29) 『仁祖實錄』 권6, 2年 7月 18日(庚午), “謝恩使書狀官蔡裕後, 行到平安道, 稱病不行, 以冬至使書狀官洪霽, 移差以送. 復以金德承爲洪霽之代, 追及使行於安州.” 洪霽은 뒤에 洪翼漢으로 개명하였다.

장관의 체직과정을 서술하면서 湖洲를 ‘有一人’이라고만 언급함으로써³⁰⁾ 湖洲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³¹⁾ 즉, 당시 湖洲의 청병은 연행 기피를 위한 핑계로 판단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당시 연행 기피 분위기의 일단도 짐작할 수 있다.

少痊의 연행기간 행적은 『少痊公文集』에 5題의 한시와 묘지행장에서만 간략히 서술한 내용뿐이기 때문에, 少痊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다. 대신 花浦의 『朝天航海錄』을 살펴보면, 少痊 일행의 행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少痊 일행은 10월 22일에 회동관에 도착했다. 11월 2일~5일까지 4일간 朝天宮에서 賀節演儀와 聖節演儀에 참가하고, 11월 12일에는 冬至賀禮에 참가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聖節賀禮에 참가했다. 12월 26일에 賀正習儀에 참가하고, 1월 1일에 賀正禮에 참가했다. 1월 28일에는 국자감에 가서 謁聖禮를 행하였고, 2월 23일에는 天壇을 구경했다. 이를 통해서 少痊 일행의 연행은 ‘冬至·聖節·正朝’의 하례에 참여하기 위함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少痊 일행이 10월 28일과 11월 12일에 賀班에서 紅衣를 입는 일로 정문을 올렸지만 준허되지 못한 사례가 보인다.³²⁾ 이는 조선의 연행사들이 기존에 黑袍를 입고 하반에 참여했었는데, 1623년 2차 주청사로 연행했던 花川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明熹宗이 紅袍를 하사하고, 홍포를 입고 하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³³⁾ 즉 花川의 전례

30) 金字梁, 『少痊公文集』 권2, ‘行狀’, “時有遼梗, 泛海星槎, 多滄沒. 有一人以書狀既行, 臨登舡, 辭以疾免遞. 廟議難其人, 卽舉公充其代. 限一旬戒行事, 同朝咸怵然爲公憂, 公獨無幾微, 趣裝如期. 以八月初, 單車追到, 而航渤海, 循青兗, 以達于上京, 凡三閱序而還.”

31) 예를 들어 鶴峯 金誠一(1538~1593)이 梧陰 尹斗壽(1533~1601)의 너물수수 사실을 비판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방식을 보여주고 있다.(이성형, 「鶴峯 金誠一 燕行詩의 載道的 意境 考察」, 『한문학논집』 제40집, 2015, p.238 참조)

32) 洪翼漢, 『朝天航海錄』 권1, 甲子年 10月 28日(己酉), “冬至使以賀班着紅事呈文, 不成.”; 甲子年 11月 12日(壬戌), “冬至使一行, 以穿紅事, 呈文于禮部, 不准.”

33) 劉寶全, 「花川 趙澈의 燕行과 한시 창작」, 『東方漢文學』 第52輯, 2012, p.36 참

를 계기로 명이 조선의 의전서열을 높여준 것을 유지하고자한 노력이었지만,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한 少瘞와 花浦는 회동관에 있으면서 여러 수의 한시를 수창하며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아울러 花浦 일행들과 少瘞 일행들이 여러 차례 주연을 함께한 정황도 확인된다.³⁵⁾ 따라서 少瘞의 동지사행은 시급한 외교 현안의 완수를 위한 활동 보다는 정기사절의 의례적인 외교 활동이 중심이었다.

少瘞 일행은 비교적 무난했던 외교활동에 비하여 귀국 직후부터 탄핵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로 연행은 육로보다 물건 운송이 용이했는데, 龜沙沙竹泉과 天坡 吳翻(1592~1634)이 뇌물을 받고 여러 명의 상인들을 대동함으로써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³⁶⁾ 또한 少瘞 일행이 宣沙浦에 정박하자 도사가 행장을 수검했고,³⁷⁾ 이후 대간은 龜沙가 무단으로 상인을 대동하여 폐단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국문하고 치죄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仁祖가 해로 연행을 다녀온 공로를 인정하여, 龜沙를 사직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³⁸⁾

조.

- 34) 吳翻, 『天坡集』 第2, ‘余自到玉河, 患水土, 委頓衾枕者月餘, 憤憤不省事. 洪澤遠與金可久, 唱和成卷, 自謂詞場勝負, 投余而使之賈勇. 余之無病, 猶不及人, 況又病甚乎. 用其韻答之. 金乃冬至使書狀.’
- 35) 洪翼漢, 『朝天航海錄』 권1, 乙丑年 1月 11日(庚申), “午後, 金可久邀往馬場, 行酒而歸.”; 乙丑年 1月 14日(癸亥), “冬至使以生辰, 設酌來速.”; 乙丑年 2月 17日(丙申). “金可久來訪, 酒于副使房, 泥醉而罷.”
- 36) 『仁祖實錄』 권6, 2年 5月 16日(己巳), “侍讀官金時讓曰 一自海路赴京之後, 挾帶物貨, 比旱路甚便, 故前後使行員役, 率多市井牟利之輩, 其見侮中國, 不可勝言. 請嚴立科條, 俾無冒往之弊. … 時權啓, 李德洞, 吳翻輩, 公然受賂, 一人所率, 多至二十五人, 人皆唾鄙. 時讓以搜銀御史, 摘發賈人于德洞之行, 沒其財而治其罪, 人多快之.”
- 37) 『仁祖實錄』 권9, 3年 4月 29日(丙午), “冬至使權啓書狀官金德承, 回泊宣沙浦, 令本道都事, 搜檢其行.”
- 38) 『仁祖實錄』 권9, 3年 5月 8日(丙辰), “下冬至使權啓于吏. 初啓之受命朝天之時, 濫率市井牟利之輩, 貽弊列邑. 搜檢御史金時讓, 還自西路, 極言啓奉使無狀, 臺諫請待還來, 拿鞫定罪, 故至是, 就獄置對. 上以爲 越海朝京, 不無功勞, 只削其職.”

요컨대 당시의 해로 연행에서 사신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뇌물을 써서 이를 기피하고자 했지만, 기타 수행원들은 해상 운송의 편리함을 바탕으로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뇌물을 써서 연행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다. 1624년 동지사행의 과정을 통해서 해로 연행의 이러한 양면적 폐단이 모두 확인된다.

그런데 少瘡은 4월 29일에 연행에서 돌아와서, 6월 24일에 工曹佐郎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연행시에 少瘡이 보여주었던 처신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회동관의 잔치에서 상사 이하는 관례로 賞銀을 내려줌이 있었는데, 공은 받아서 전대에 채우지 않고, 대동한 하졸에게 나누어 주었고, 서책과 완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가까이 하는 것이 없었다. 겨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다만 보온용 모자만 갖추고 착용했지만, 돌아올 때에 이 역시 대행했던 역관에게 주어 모두 공의 청렴한 절조는 미치기 어렵다고 여겼다. 月沙 李公이 일찍이 시에서 이르기를 “아침에 서장관에 제수되어 저녁에 얼음 마셨는데, 연경으로 관광가는 행색은 담박하기 스님 같네.”라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공을 알아 보신 것이로다.³⁹⁾

위 글은 少瘡의 동지사행 중 행적을 기술한 행장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少瘡이 연행 기간 내내 물욕 없이 청렴한 태도로 일관했고, 月沙는 이러한 少瘡의 성품을 전송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묘지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주목되는 점은 위 글이 少瘡의 행장 기사라는 것이다. 행장이나 묘지 등은 表德之文으로, 기사의 내용은 대상 인물의 덕행이나 업적을 위주

39) 金字梁, 『少瘡公文集』 권2, ‘行狀’, “其館燕也, 上价以下, 有例賜賞銀. 公受而不實于囊, 分與所帶下卒, 至於書冊玩好, 一切無所近. 以經冬, 故只備煖帽著之, 來時亦給帶行譯官, 咸以公之清操爲難及焉. 月沙李公嘗有詩云, 朝拜除書夕飲冰, 觀周行色淡如僧, 此信知公乎.”

로 서술된다. 따라서 위의 기사는 해로 연행의 어려움이나 성과 보다 清廉無慾한 처신이 당시의 연행 환경에서 더 어려웠는데, 이를 극복한 少菴은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1626년에 동지사로 해로 연행을 다녀왔던 市北 南以雄(1575~1648)의 신도비명에서도 확인되어,⁴⁰⁾ 당시 해로 연행의 만연한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天槎大觀』의 概觀

『天槎大觀』은 『少菴公文集』卷2의 ‘雜著’로 편재되어 있다. 并序를 갖추고, 노정에 따라 지역의 지리정보를 서술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前後航海路程’이 첨부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연행록과는 상이한 형식이다.

『天槎大觀』의 제작 시기는 少菴의 并序를 근거로 판단할 때, 1625년 2월 하순에 會同館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⁴¹⁾ 저작 목적과 내용도 并序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은 자신을 책망함에는 무겁고 두루 해서, 안락함으로 혹 그것을 잊을까 염려하였다. 跋涉한 것이 모여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발해를 향해한 위험과 燕山 霜雪의 고통 등이 이르렀던 지역마다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해서 항상 경계할 바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이 그림은 다만 燕齊 지역 경물의 승경과 도읍의 변화한 자취만이 아니다. 아! 三角山과 漢江 사이에서 굽이굽이 이 그림을 펼치면 부귀가 반드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月岳山과 琴湖의 언덕에서 빠르거나 천천히 이 그림을 펼치면 빈천이 반드시 근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⁴²⁾

40) 趙綱, 『龍洲先生遺稿』 권21, ‘左議政春城府院君市北南公神道碑銘’, “六月, 差冬至使. 時海路初開, 前使數輩溺不返, 送行者無不咨嗟涕洟, 公怡然無幾微難色. … 至丁卯春, 公猶在燕, 聞虜我. 公洒泣被面, 遂申申胥之請, 兵部義而許之, 指期出師, 聞和報而止. 及歸, 裝囊如洗.”

41) 金德承, 『少菴公文集』 권2, ‘天槎大觀 并序’, “天啓乙丑仲春下浣, 金海金德承, 書于會同館.”

少菴은 정사였던 龜沙가 해로 연행의 위험과 행로난을 그려서, 안락할 때에 당시의 고난을 상기하며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天槎大觀』이 원래는 훗날의 臥遊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의 내용은 燕과 齊 지역의 승경과 도읍지의 변화함도 담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天槎大觀』은 도본이 주가 되었는데, 지도의 형태보다 회화성이 뚜렷했을 것이다.

다만 현전하는 해로 연행도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燕行圖幅』, 『航海朝天圖』, 『朝天圖』, 육군박물관의 『航海朝天圖』, 한국국학진흥원의 『世傳書畫帖』, 개인 소장의 『梯航勝覽圖』, 『朝天圖』가 있지만,⁴³⁾ 『天槎大觀』의 내용과 일치하는 연행도가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 도본은 일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⁴⁾

또한 小註를 통해서 도본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어떤 본에는 ‘山’字가 없다.”는 설명으로 이본 존재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⁴⁵⁾ 다양한 이본이 현전하는 『航海朝天圖』와 다르게 『天槎大觀』은 이본이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문집이 간행된 20세기 초에는⁴⁶⁾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天槎大觀』은 20세기 초까지 도본과 도설의 형식이 구비되어 전해졌고, 이본도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天槎大觀』의 내용 편재를 살펴보면, 『天槎大觀』이 회동관에 도착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북경까지 경과했던 지역 순서대로 편재

42) 金德承, 『少菴公文集』 권2, ‘天槎大觀 并序’, “然公責己也, 重以周, 恐安樂而或忘之. 卽其跋涉, 哀爲繪事, 使渤海舟楫之危, 燕山霜雪之苦, 隨處而宛在目中, 常有所戒. 則是圖也非特爲燕齊景物之勝, 都邑繁華之蹟也. 噫. 華山漢水之間, 委蛇而披此圖, 富貴未必爲樂. 月岳琴湖之畔, 捷遲而披此圖, 貧賤未必爲憂矣.”

43)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pp.120-121 참조.

44) 한국고전종합DB - 『少菴集』 해제(2016.09.01. 검색).

45) 金德承, 『少菴公文集』 권2, ‘臨淄縣’, “按圖, 本有杞梁, 晏嬰二墓, 而圖說無之, 疑有關文.”; ‘濟南府’. “圖本, 作舜井. … 圖本, 作環波亭.”; ‘海島’. “一本無山字.”

46) 한국고전종합DB - 『少菴公文集』 해제(2016.09.01. 검색)

되었다. 산동 지역은 ‘登州府→黃縣→萊州府→昌邑縣→濰縣→昌樂縣→青州府→益都縣→臨淄縣→長山縣→鄒平縣→章邱縣→濟南府→齊河縣→禹城縣→平原縣→德州’ 순으로 편재되었다.

연행단은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支供과 護行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역참로를 이용했다. 明代 山東의 驛站路는 ‘登州府→黃縣→黃山館驛→萊州府→灰埠驛→昌邑縣→濰縣→昌樂縣→青州府→臨淄縣→長山縣→鄒平縣→章丘縣→濟南府→齊河縣→禹城縣→平原縣→德州’를 경유했다.⁴⁷⁾ 당시 역참로를 지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1】 明代 山東驛路 分布圖 및 現在 GPS 路程圖⁴⁸⁾

明代 山東驛路 分布圖	現在 山東 地域 GPS 路程圖

『天槎大觀』에 구체적인 노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少瘡의 경유지

47) 역참을 기준으로 한 이동 경로는 “登州府→黃縣→黃山館驛→萊州府→灰埠驛→昌邑縣→濰縣→昌樂縣→青杜驛→臨淄縣→金嶺鎮驛→龍山鎮驛→譚城驛→晏城驛→劉普驛→桃源驛→德州驛”이다.(楊正泰, 『明代驛站考』, 上海古籍出版社, 2006, p.119)

48) 신춘호, 「명·청 교체기 海路使行 路程의 인문정보 일고」, 『韓國古地圖研究』 제8권 제1호, 2016, pp.45-46. 필자는 2016년 1월 5일(화)~1월 12(화)까지 연행 노정 현장연구의 전문가인 신춘호·임문성 선생님과 해로 연행 노정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GPS 노정은 2015년과 2016년의 2차례 답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데, 그 중 제남부를 경유한 노정이 당시 필자가 참여했던 노정으로, 현재의 도로와 명대 역참로가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함께 첨부했다.

역과 역참로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少菴 일행의 산동 노정은 당시의 역참로를 따라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天槎大觀』에는 경유했던 각 지역의 건치연혁·고적·산천 등 각종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大明一統志』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용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미에 첨부된 ‘前後航海路程’을 살펴보면, 皇城島에 대해서 小註로 ‘天槎大觀 作黃城島’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前後航海路程’이 『天槎大觀』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丁卯胡亂(1627) 이후의 노정변화와 己巳年(1629) 이후 袁崇煥에 의해 변경된 해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并序에서 밝힌 『天槎大觀』의 제작 시기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통해서 ‘前後航海路程’은 『天槎大觀』의 원래 내용은 아니고, 문집을 간행할 때 당시 해로 노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적인 路程과 里數가 『通文館志』 권3의 ‘航海路程’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大明一統志』의 受容樣相 分析

『天槎大觀』은 ‘大明一統志曰 ○○’처럼 『大明一統志』를 직접 인용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지만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인용해서 서술한 부분이 많다. 또한 『天槎大觀』이 지리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山川’에 대한 서술 비중이 높다. 본장에서는 『天槎大觀』의 山東 육로 구간 서술에 대한 『大明一統志』수용양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를 도표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진행한 분석 작업의 몇 가지 고려 요소로는 우선, 『天槎大觀』의 산동 지역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郡名·土產·公署·學校·列女’와 관련된 항목은 보이지 않아서 이들은 분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天槎大

觀』에서는 인접한 대상이 통합 서술되면서 여러 대상이 망라되는 경우가 많다. 도표에서 사용된 대상의 명칭과 항목은 『大明一統志』의 인용이 많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했는데, 少瘥이 견문한 내용도 이에 준해서 분류했다.⁴⁹⁾ 패루는 역사적 유적과 관련이 깊어 古蹟으로 분류했고, 화원이나 역참 등은 宮室로 분류했다. 『大明一統志』의 항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鄉里는 항목을 별도로 부여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항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 수 있다.

1. 登州府의 『大明一統志』受容樣相 分析

『大明一統志』에 登州府는 1州7縣이 있는데, 府治는 蓬萊縣에 있었다.⁵⁰⁾ 이중 연해 노경상 경유했던 지역은 蓬萊縣·黃縣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天槎大觀』의 기록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1】 登州府 서술대상과 『大明一統志』수용양상

지역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登州府 (蓬萊)	1	登州府	建置沿革/形勝/風俗	△	10	漱玉池	山川	○	19	杏花村	鄉里	×
	2	新開海口 ⁵¹⁾	橋梁	△	11	畫橋	橋梁	○	20	花山泉	山川	△
	3	望仙門	宮室	△	12	密水橋	橋梁	○	21	天生橋	橋梁	◎
	4	賓日樓	宮室	△	13	丹崖山	山川	○	22	密神山	山川	○
	5	松堂	宮室	○	14	蓬萊閣	宮室	◎	23	漏天山	山川	○
	6	頌德堂	宮室	○	15	珠璣巖	山川	△	24	龍山	山川	△
	7	甘泉亭 ⁵²⁾	宮室	○	16	田橫山	山川	○	25	九目山	山川	○

49) 예를 들어 『大明一統志』 登州府의 내용 중에서 ‘田橫山’은 “在府城西北三里。俗傳漢韓信破齊，田橫與其徒五百人棲此。”로 서술되었고, ‘田橫寨’는 “在府城與蓬萊閣相對。西北二面，背巨海。石壁高峻。昔漢韓信破齊，田橫東走，故寨遺址尙存。”으로 서술되었는데, 『天槎大觀』에서는 “田橫山在其西，韓信破齊，橫與其徒五百棲此，寨址尙遺.”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경우 ‘田橫山’이 ‘田橫寨’보다 서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田橫山’으로 분류했다.

50) 『大明一統志』의 登州府 소속 주현은 蓬萊縣·黃縣·福山縣·棲霞縣·招遠縣·萊陽縣·寧海州·文登縣이다.(『大明一統志』 권25, 「登州府」, 「建置沿革」 참조.)

縣	8	祐德觀	寺觀	○	17	臙脂岡	山川	△	26	羽山	山川	△
	9	開元寺	寺觀	○	18	陳迪	人物	×				
黃縣	1	黃縣	建置沿革	△	8	蹲犬山	山川	◎	15	大入城	古蹟	○
	2	泮水橋	橋梁	×	9	萊山	山川	○	16	徐鄉城	古蹟	△
	3	廬山	山川	◎	10	萊子城	古蹟	○	17	土鄉城	古蹟	○
	4	盧仙勝迹	古蹟	×	11	蔚陽山	山川	○	18	寶花臺	宮室	○
	5	延眞宮	宮室	○	12	淳于堯墓	陵墓	○	19	黃山駟	宮室	×
	6	麻姑	仙釋	◎	13	幟城	古蹟	△				
	7	麻姑仙里	古蹟	×	14	中郎城	古蹟	○				

◎ 인용 및 부연 ○ 인용 △ 축약 × 미수록(건문)⁵³⁾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登州府는 산동 지역의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된 항목 이외에 ‘書院祠廟名宦·流寓’와 관련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⁵⁴⁾ 登州府(蓬萊縣)는 주로 登州府城과 蓬萊水城에 소재한 ‘산천’과

- 51) ‘水門城’을 『大明一統志』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였다.
- 52) ‘甘泉堂’을 『大明一統志』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였다.
- 53) 수용양상의 분석은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거의 변형 없이 인용한 한 경우는 ‘인용’으로 분류했고,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인용한 뒤에 건문이나 소건을 첨부한 경우는 ‘인용 및 부연’으로 분류했다.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생략한 경우는 ‘축약’으로 분류하였고, 『大明一統志』에 관련 내용 없이 건문과 소건을 첨부한 경우는 ‘미수록(건문)’으로 분류했다. 이하 다른 지역의 내용도 이에 준해서 분석했다.
- 54) 登州府에 대한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分析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항목	建置沿革				山川			宮室			關梁			寺觀			陵墓			古蹟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蓬萊縣			1		6	5			1	3	2		1	2	1		2							
黃縣			1		2	2			2	1									1				4	2
소 계			2		2	8	5		1	5	2	1	1	2	1	1	2						4	2
합 계			2			15				9				5					2				1	

항목	人物				仙釋			鄉里			합계	
지역	◎	○	△	×	◎	○	△	×	◎	○		△
蓬萊縣				1								1
黃縣												
소 계					1							
합 계				1	1							1
				1				1				45

受容樣相 分析표 항목에서 『天槎大觀』은 府에 대한 建置沿革을 설명하면서

‘궁실’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고, 黃縣은 고성과 관련된 ‘고적’에 대한 서술이 비중이 높다. 登州府 전체적으로는 ‘산천·궁실·고적’의 서술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蓬萊閣에 대한 『天槎大觀』의 서술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자.

그 위가 蓬萊閣이다. 수려하고 기이하며 탁트여 한 州의 장관이었다. 옛적에는 해신묘였는데, 宋治平 연간에 郡守 朱處約이 서편으로 이 건했고, 인하여 그 터에 蓬萊閣을 세웠다. 趙抃의 시에 “옆의 봉래각은 산마루에 우뚝하게 세워졌으니, 바닷물은 드넓고 긴 바람 불어와 상쾌하네. 천지가 포용하니 온 강하가 흘러들고, 조석으로 일렁이니 두 차례 조수 밀려오네. 여유롭게 생각하니 자리에서 遊觀이 멀어지는데, 점점 깨달아 지기는 흥중의 도량이 트이네. 내가 작년에 일찍이 바다를 바라본 곳도, 또한 항주 동향의 누대였었네.”라 하였다. 唐太宗의 시와 陳搏이 쓴 ‘壽福’ 2자와 蘇東坡의 시가 모두 석각이요 고적이었는데, 소동파의 필적이 가장 많이 흐릿했다. 기타 시인과 묵객의 알려진 시와 쓰여진 편액이 어떤 것은 돌에 새겨지고, 어떤 것은 현판에 새겨졌는데, 분분하여 다 기록할 수 없었다.⁵⁵⁾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蓬萊閣’에 대한 내용에 少瘞의 견문이 부연된 형태로 서술되었다.⁵⁶⁾ 『大明一統志』의 내용 중에서 “在府城北丹崖山頂”과 “爲州人遊賞之所”은 ‘丹崖山’과 연계된 서술이어서 생략되었지

‘形勝風俗’을 부연설명하고 있어서 이를 建置沿革으로 분류했다. ‘關梁’은 登州府에서는 ‘橋梁’으로 분류했지만, 다른 지역은 ‘關梁’으로 분류되어 ‘關梁’으로 분류했다. 필자가 별도로 구분한 ‘鄉里’는 마지막에 추가했다. 이하 다른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 55) 金德承, 『少瘞公文集』 권2, 「登州府」, “舊爲海神廟, 宋治平間, 郡守朱處約, 移于西, 而仍基建閣. 趙抃詩, 山巔危構傍蓬萊, 水闊風長此快哉. 天地涵容百川入, 晨昏浮動兩潮來. 遑思座上遊觀遠, 愈覺胸中度量開. 憶我去年曾望海, 杭州東向亦樓臺. 唐太宗詩, 陳搏書壽福二字, 蘇東坡詩, 皆石刻古蹟, 而蘇筆最多模糊. 其他詩人墨客, 播詠題額, 或鐫石, 或刻板, 紛不盡記.”
- 56) 『大明一統志』 권25, 「登州府」, 「宮室」, “蓬萊閣 在府城北丹崖山頂, 舊爲海神廟, 宋治平間郡守朱處約, 移於西偏, 卽其故基建閣, 爲州人遊賞之所. 趙抃詩 山巔危構傍蓬萊, 水闊風長此快哉. 天地涵容百川入, 晨昏浮動兩潮來. 遑思座上遊觀遠, 愈覺胸中度量開. 憶我去年曾望海, 杭州東向亦樓臺.”

만,⁵⁷⁾ 처음부터 趙抃의 시까지는 그 서술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天槎大觀』에서는 “朱處約”을 “朱虔約”으로, “此快哉”를 “此決哉”로 誤記하고, “山顛”을 “山巔”으로 通假하여 形似字의 誤記와 通假 사례도 보인다. 이는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唐太宗詩” 이하로는 少菴의 견문으로 『大明一統志』를 보충한 부분이다. 壺亭의 『朝天記地圖』에서는 ‘臣見○○, 臣聞○○’의 형식으로 견문 부분을 밝히고 있지만, 『天槎大觀』에서는 인용과 견문 서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天槎大觀』에서 登州府는 45개의 항목이 서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4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登州府의 주요한 서술 내용을 보면, 漢武帝와 관련된 ‘望仙門’이나 盧童子麻姑 등과 관련된 ‘盧仙勝迹 麻姑仙里’ 등과 蘇軾과 관련된 ‘松堂·珠璣巖’ 등의 서술 비중이 높다. 이를 통해서 登州府를 ‘神仙·蘇軾의 文學’과 연관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필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誤記나 通假 사례가 확인되었고, 인용과 견문의 서술상 경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2. 萊州府의 『大明一統志』受容樣相 分析

『大明一統志』에 萊州府는 2州5縣이 있는데, 府治는 掖縣에 있었다.⁵⁸⁾ 이중 연행 노정상 경유했던 지역은 掖縣·昌邑縣·濰縣이다. 『天槎大觀』의 이들 지역에 대한 기록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7) 『大明一統志』 권25, 「登州府」, 「山川」, “丹崖山 … 上有蓬萊閣. … 秀麗奇絕, 爲一郡偉觀.”

58) 『大明一統志』의 萊州府 소속 州縣은 掖縣·平度州·濰縣·昌邑縣·膠州·高密縣·即墨縣이다.(『大明一統志』 권25, 「萊州府」, 「建置沿革」 참조)

【도표-2】 萊州府 서술대상과 『大明一統志』 수용양상

지역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萊州府 (掖縣)	1	萊州府	建置沿革/形勝/風俗	△	10	無訟堂	宮室	○	19	寒同山	山川	○
	2	界河	山川	×	11	青羅觀	寺觀	○	20	大基山	山川	△
	3	寺口河	山川	×	12	妙覺寺	寺觀	△	21	三山島	山川	○
	4	朱果寺	寺觀	×	13	資聖寺	寺觀	△	22	盞石	山川	◎
	5	萬歲河	山川	○	14	幸臺	宮室	○	23	福山 祿山	山川	○
	6	萬歲橋	關梁	○	15	沙丘城 ⁵⁹⁾	古蹟	○	24	輪井	山川	○
	7	望海臺	宮室	○	16	馬鞍山	山川	○	25	三山亭	宮室	○
	8	受宣堂	宮室	○	17	神仙洞	山川	○	26	孫善繼	人物	×
	9	丘處機 ⁶⁰⁾	人物	△	18	掖水橋	關梁	○				
昌邑縣	1	昌邑縣	建置沿革	△	7	崇聖寺	寺觀	○	13	玉眞宮	寺觀	△
	2	蔡齊	人物	○	8	石灣橋	關梁	○	14	芙蓉池	山川	○
	3	杜阜河	山川	×	9	四知廟	祠廟	△	15	譚溥	人物	×
	4	濰水隄	山川	○	10	密城	古蹟	○	16	孫洪	人物	×
	5	新河	山川	×	11	陸山	山川	○	17	佗泥橋	關梁	×
	6	濰水	山川	◎	12	都昌城	古蹟	△				
濰縣	1	濰縣	建置沿革	△	9	濰水	山川	△	17	樹亭	古蹟	◎
	2	營丘舊封 ⁶¹⁾	古蹟	×	10	白浪河	山川	◎	18	成觀	人物	△
	3	八角池	山川	○	11	東丹河	山川	△	19	孔融廟	祠廟	◎
	4	寶沙河橋	關梁	×	12	西丹河	山川	○	20	平壽城	古蹟	○
	5	王烈 ⁶²⁾	流寓	△	13	嚴御史別庄	宮室	×	21	麓臺	宮室	○
	6	寒亭	古蹟	○	14	流飯橋	關梁	○	22	王袁 ⁶³⁾	人物	△
	7	平仲故里	古蹟	×	15	几山	山川	○				
	8	孔融 ⁶⁴⁾	名宦	◎	16	靖共堂	宮室	○				

◎ 인용 및 부연 ○ 인용 △ 축약 × 미수록(견문)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萊州府는 산동 지역의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된 항목 이외에 ‘書院陵墓仙釋鄉里’와 관련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⁶⁵⁾ 萊州府(掖縣)는 주로 府城에 소재한 ‘산천·궁실·사관’에 대한 서

59) ‘沙邱城’은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60) ‘邱處機’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61) ‘營邱舊封’은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62) 『大明一統志』 권25, 「遼東都指揮使司」 ‘流寓’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63) 『大明一統志』 권25, 「青州府」 ‘人物’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64) 『大明一統志』 권25, 「青州府」 ‘名宦’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65) 萊州府에 대한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分析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술의 비중이 높고, 昌邑縣은 漢代 인물과 관련된 ‘산천’에 대한 서술이 비중이 높다. 濰縣은 주로 하천 및 濰縣 출신 인물과 관련된 ‘산천·고적’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다. 萊州府 전체적으로는 ‘산천·인물·고적·궁실’의 서술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三山亭’과 ‘王烈’에 대한 『天槎大觀』의 서술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자.

三山亭은 府城의 북쪽에 있다. 漢武帝 때에 건립되었는데, 바다 가운데의 三神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三山亭이라고 명명했다. 蘇軾의 시에 “동해는 푸른 고리처럼, 서북의 蓬萊를 감쌌네. 구름 빛은 하늘빛과 함께, 곧장 三山 모퉁이까지 이르렀네.”라고 하였다.⁶⁶⁾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三山亭’을 인용하여 서술되었는데,⁶⁷⁾ “以其可望海中蓬萊 瀛洲 方丈 三山故名.”이 “可望海中三神山故名.”으로 축약되었고, “東海名碧環”이 “東海如碧環”으로 변경되었지만 대체로 『大明一

항목 지역	建置沿革				山川				宮室				關梁				寺觀				祠廟			
	◎	○	△	×	◎	○	△	×	◎	○	△	×	◎	○	△	×	◎	○	△	×	◎	○	△	×
掖 縣			1		1	7	1	2	5				2				1	2	1					
昌邑縣			1		1	3		2					1	1			1	1						1
濰 縣			1		1	3	2		2	1		1	1	1							1			
소 계	0	0	3	0	3	13	3	4	0	7	0	1	0	4	0	2	0	2	3	1	1	0	1	0
합 계	3				23				8				6				6				2			

항목 지역	古蹟				名宦				流寓				人物				합계
	◎	○	△	×	◎	○	△	×	◎	○	△	×	◎	○	△	×	
掖 縣	1													1	1		26
昌邑縣	1	1											1		2		17
濰 縣	1	2		2	1				1				1	1	0		22
소 계	1	4	1	2	1	0	0	0	0	1	0	0	0	2	2	3	65
합 계	8				1				1				7				

66)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萊州府」, “三山亭在城北. 漢武時建, 可望海中三神山故名. 蘇軾詩東海如碧環, 西北卷蓬萊. 雲光與天色, 直到三山廻.”

67) 『大明一統志』 권25, 「萊州府」, 「宮室」, “三山亭在府城北. 世傳漢武帝時建, 以其可望海中蓬萊 瀛洲 方丈 三山故名. 宋蘇軾詩 東海名碧環, 西北卷蓬萊. 雲光與天色, 直到三山廻.”

統志』의 서술과 일치한다.

牛埠店의 패루에 ‘彦方式化’라고 게시되었으니, 곧 王烈인데, 본래 北海 사람이다. 漢末에 避世地였던 遼東에 爭訟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王烈에게 질정하려다가 어떤 이는 연로에 이르러 돌아갔고, 어떤 이는 王烈의 초려를 바라보고는 그만두었다. 지금까지 추모하여 그를 표창한 것이다.⁶⁸⁾

위 글은 流寓와 관련된 서술로 濰縣에서만 보이는 항목인데, 『大明一統志』 ‘遼東都指揮使司’의 관련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⁶⁹⁾ 이는 『天槎大觀』이 『大明一統志』를 폭넓게 참고 했음을 보여준다.

『天槎大觀』에서 萊州府는 65개의 항목이 서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52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萊州府의 주요한 서술 내용을 보면, 秦始皇과 漢武帝와 관련된 전설을 담고 있는 ‘萬歲橋望海臺幸臺沙丘城蓋石三山亭’ 등과 ‘蔡齊楊震王烈孔融王裒’ 등 유학적 가치를 실친한 인물들의 고적과 사묘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다. 이를 통해서 萊州府는 登州府에 비해서 유학과 연계된 서술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天槎大觀』에서 宋의 大儒 呂祖謙을 배향한 ‘東萊書院’의 서술이 누락되어 의문이다. 동래서원은 『大明一統志』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⁷⁰⁾ 당시 다른 연행록이나 연행도에는 공통으로 소개된 장소로, 그 관심도와 서술비중이 높았다. 『天槎大觀』에서 孔子의 이름을 避諱하여 ‘丘’가 포함된 지명을 ‘邱’로 서술하여, 유학을 추송하고 있는 少菴의 의식을 직접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동래서원의 서술 누락을 부자연스럽게

-
- 68) 金德承, 『少菴公文集』 권2, ‘萊州府’, “牛埠店, 揭彦方式化. 乃王烈也, 本北海人. 而漢末避地遼東, 有爭訟者. 將質於烈, 或至途而反, 或望廬而止. 至今追慕而表之.”
- 69) 『大明一統志』 권25, 「遼東都指揮使司」, ‘流寓’, “王烈, 本北海人. 漢末避地遼東. 有行誼, 東城人多歸之. 有爭訟者, 將質之於烈, 或至途而返, 或望廬而還, 皆相推以直, 不敢使烈聞.”
- 70) 『大明一統志』 권25, 「萊州府」, ‘書院’, “東萊書院, 在府治西南. 宋儒呂祖謙, 以先世萊州人, 世號東萊先生. 後人慕之, 爲立書院於此祠之. 本朝景泰五年重脩.”

한다.『天槎大觀』의 여러 곳에 결락과 결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래서원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결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王烈’의 사례를 통해서 『天槎大觀』이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폭넓게 참고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3. 靑州府의 『大明一統志』受容樣相 分析

『大明一統志』에 靑州府는 1州13縣이 있는데, 府治는 益都縣에 있었다.⁷¹⁾ 이중 연행 노정상 경유했던 지역은 昌樂縣·益都縣·臨淄縣이다. 『天槎大觀』의 이들 지역에 대한 기록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3】 靑州府 서술대상과 『大明一統志』 수용양상

지역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昌樂縣	1	昌樂縣	建置沿革	△	7	白浪河	山川	○	13	營陵舊封	古蹟	×
	2	孤山 ⁷²⁾	山川	◎	8	臥佛寺	寺觀	◎	14	堯溝店	鄉里	×
	3	仙人石跡	古蹟	×	9	玉霄宮	寺觀	◎	15	堯溝橋	關梁	×
	4	安仁舊治	古蹟	×	10	方朔古壟 ⁷³⁾	古蹟	×	16	重建橋	關梁	×
	5	方山	山川	○	11	東丹河橋	關梁	×	17	灑水	山川	○
	6	營丘城 ⁷⁴⁾	古蹟	○	12	古劇南城	古蹟	×				
靑州府 (益都縣)	1	靑州府	建置沿革/形勝/風俗	△	12	范公亭	宮室	○	23	芹泉	山川	○
	2	雪宮	古蹟	◎	13	范公泉	山川	○	24	靑龍橋	關梁	×
	3	莊嶽里	古蹟	○	14	廣縣城	古蹟	○	25	北陽水 ⁷⁵⁾	山川	○
	4	海岱樓	宮室	○	15	雲門山	山川	○	26	王皇橋	關梁	×
	5	田文第	古蹟	△	16	水簾洞	山川	△	27	平正窟	山川	×
	6	彌陀寺	寺觀	○	17	劈山	山川	○	28	石羊橋	關梁	×
	7	表海亭	宮室	○	18	東陽城	古蹟	△	29	朗公山	山川	○
	8	眞武觀	寺觀	○	19	武成王廟	祠廟	△	30	駝山	山川	△
	9	南洋橋	關梁	○	20	堯山	山川	○	31	石膏山	山川	○
	10	顏文姜廟	祠廟	○	21	堯祠	祠廟	○	32	九迴山 ⁷⁶⁾	山川	○
	11	富相亭	宮室	○	22	廣固城	古蹟	○				

71) 『大明一統志』의 靑州府 소속 州縣은 益都縣·臨淄縣·博興縣·高苑縣·樂安縣·壽光縣·昌樂縣·臨朐縣·安丘縣·諸城縣·蒙陰縣·莒州·沂水縣·日照縣이다.(『大明一統志』 권24, 「靑州府」, 「建置沿革」 참조)

益都縣	1	益都縣	建置沿革	△	5	聖王廟	祠廟	×	9	灤水	山川	×
	2	貫店	鄉里	×	6	蘇秦墓	陵墓	○	10	南陽水	山川	○
	3	貫水	山川	×	7	淄河橋	關梁	×	11	李成	人物	◎
	4	漏澤園	宮室	×	8	孝婦河	山川	○	12	王曾	人物	◎
臨淄縣	1	臨淄縣	建置沿革	△	11	葵丘 ⁷⁷⁾	古蹟	◎	21	女水	山川	△
	2	獨津橋	關梁	×	12	申池	山川	○	22	太公塚	陵墓	○
	3	修真觀	寺觀	○	13	康浪水	山川	○	23	四王墓	陵墓	◎
	4	桓公廟	祠廟	◎	14	時水	山川	○	24	田單墓	陵墓	△
	5	太公廟	祠廟	◎	15	淄水	山川	◎	25	三土墓	陵墓	○
	6	古齊城	古蹟	○	16	南郊山	山川	○	26	稷山	山川	○
	7	高陽城	古蹟	○	17	天齊淵	山川	○	27	貓山	山川	○
	8	安平城	古蹟	○	18	牛山	山川	△	28	愚公山	山川	○
	9	畫邑城	古蹟	○	19	管仲墓	陵墓	○	29	王蠋墓	陵墓	○
	10	西安城	古蹟	○	20	菟頭山	山川	△	30			

◎ 인용 및 부연 ○ 인용 △ 축약 × 미수록(건문)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靑州府는 산동 지역의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된 항목 이외에 ‘書院名宦·流寓·仙釋’과 관련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⁷⁸⁾ 昌樂縣은 漢代 이전의 오래된 ‘고적’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다. 府治가 있던 益都縣은 靑州府와 益都縣으로 나뉘어서 서술되었다. 靑州府는 府治 주위의 ‘산천’과 齊와 관련된 ‘고적’의 서술 비중이 높고,

72) 萊州府의 孤山에 대한 설명이 함해져서 서술되었다.

73) ‘方朔古里’를 『朝天記地圖』와 『朝天航海錄』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74) ‘營邱城’은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75) ‘北洋河’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76) ‘九迴山’은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77) ‘葵邱’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78) 靑州府에 대한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分析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항목 지역	建置沿革				山川				宮室				關梁				寺觀			
	◎	○	△	×	◎	○	△	×	◎	○	△	×	◎	○	△	×	◎	○	△	×
昌樂縣			1		1	3									3	2				
靑州府			1		8	3	1		4				1	3		2				
益都縣			1		2		2			1				1						
臨淄縣			1		1	8	3							1		1				
소 계	0	0	4	0	2	21	6	3	0	4	0	1	0	1	0	8	2	3	0	0
합 계			4		32			5					9			5				

益都縣은 府治 외부의 항목이 고르게 서술되었다. 臨淄縣은 齊의 수도였기 때문에 齊와 관련된 ‘산천·능묘·고적’에 대한 서술 비중이 높다. 靑州府 전체적으로는 ‘산천·고적·관량’의 서술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葵丘’와 79) ‘孤山’에 대한 『天槎大觀』의 서술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자.

葵丘는 북쪽에 있다. 左傳에 “齊侯가 連稱과 管至父에게 葵丘에서 수자리 살게 했다.”는 곳이다. 또한 葵丘의 맹회소가 모두 이곳이다.⁸⁰⁾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葵丘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독서 경험을 부연했다. 『大明一統志』에서 臨淄縣의 葵丘는 齊襄公이 逆臣인 連稱管至父에게 수자리를 살게 했던 장소로만 소개되어 있다.⁸¹⁾ 齊桓公이 맹회했던 葵丘는 開封府의 考城縣에 있었기 때문이다.⁸²⁾ 그런데 『天槎大觀』은 동명의 장소를 혼동하고 오류를 부연했다.

『天槎大觀』에서 葵丘를 같은 장소로 오인한 것은 葵丘를 배경으로 극명하게 대비되었던 齊襄公과 齊桓公의 삶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

항목 지역	祠廟			陵墓			古蹟			人物			鄉里			합계				
	◎	○	△×	◎	○	△×	◎	○	△×	◎	○	△×	◎	○	△×					
昌樂縣							1		5						1	17				
靑州府	2	1					1	3	2							32				
益都縣			1		1							2				12				
臨淄縣	2			1	4	1	1	5								29				
소 계	2	2	1	1	1	5	1	0	2	9	2	5	2	0	0	0	0	0	2	90
합 계	6			6			18			2			2							

79) ‘葵丘’는 『천사대관』에서 孔子의 이름을 避諱해서 ‘葵邱’로 서술했다. 『大明一統志』의 용어를 따라서 서술했다.
 80)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臨淄縣’, “葵邱在北. 左傳齊侯使連稱管至父, 戍葵邱. 又葵邱之會皆此也.”
 81) 『大明一統志』 권24, 「靑州府」, ‘古蹟’, “葵丘, 在臨淄縣西二十里. 左傳齊侯使連稱管至父, 戍葵丘卽此.”
 82) 『大明一統志』 권26, 「開封府」上, ‘古蹟’, “葵丘, 在考城縣治東. 春秋諸侯盟于葵丘卽此.”

일 것이다. 葵丘를 齊桓公과 관련지은 설명은 花浦와⁸³⁾ 壺亭에게서도⁸⁴⁾ 확인된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에게 익숙했던 『孟子』나⁸⁵⁾ 『春秋』의⁸⁶⁾ 독서 경험이 동명의 장소에 투영되면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요동을 경유했던 여행 노정 중에서 연행사들이 東八站의 王祥墓를 지나며 효자 王祥을 추모하거나, 杏山에서 紅螺山을 조망하며 元順帝의 최후를 회상하는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孤山은 그 남쪽에 있다. 伯夷가 紂를 피하여 北海 가에 거처했다는 곳이 여기이다. 위에 夷齊廟가 있다. 이 산에서 기우제를 하면 곧 답응이 있다고 한다. 郡志에 孤山の 유풍은 경박한 사람을 엄숙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⁸⁷⁾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靑州府와 萊州府에 수록된 孤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⁸⁸⁾ 즉, ‘上有夷齊廟’까지는 靑州府의 서술을 인용했지만, ‘禱雨此山’부터는 萊州府의 서술을 축약해서 부연하고 있다. 夷齊廟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는데, 『大明一統志』의 내용이 매우 소략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서술 내용도 반영하여 서술 비중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
- 83) 洪翼漢, 『朝天航海錄』 권1, 甲子年 9月 21日(壬申), “回鞭下山, 歷葵丘. 噫. 彼伯業當時, 敵血樹信, 而何子孫招禍於瓜戍, 地無前後, 事有成敗, 其君之賢不肖可見.”
- 84) 鄭斗源, 『朝天記地圖』, ‘靑州圖’, “葵丘在其北, 桓公朝天下會諸侯之地.”
- 85) 『孟子集註』 권12, 「告子章句」下, “五霸, 桓公爲盛. 葵丘之會諸侯, 束牲載書而不敵血.”
- 86) 『春秋左傳』 권3, 「莊公」8年, “齊侯使連稱管至父戍葵丘, 瓜時而往曰 及瓜而代, 期戍, 公問不至. 請代, 弗許. 故謀作亂.”; 『春秋左傳』 권5, 「僖公」上 9年, “秋, 齊侯盟諸侯于葵丘曰 凡我同盟之人, 既盟之後, 言歸于好.”
- 87)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昌樂縣’, “孤山在其南. 伯夷避紂, 居北海之濱卽此. 上有夷齊廟, 禱雨此山輒應. 郡志孤山之風, 可肅薄夫.”
- 88) 『大明一統志』 권25, 「萊州府」, ‘山川’, “孤山, 在濰縣西四十里. 禱雨於此多應. 山之神曰廣靈侯, 夷齊廟亦在焉. 郡志 孤山之風, 可肅薄夫.”
『大明一統志』 권24, 「靑州府」, ‘山川’, “孤山, 在昌樂縣東一十里. 伯夷避紂居北海之濱, 卽此山之側. 上有伯夷叔齊廟.”

『天槎大觀』에서 靑州府는 90개의 항목이 서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7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靑州府는 산둥 지역 제일의 도시로, 여러 승적이 많은 장소였다. 이 때문에 『天槎大觀』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府治가 있던 益都縣을 靑州府와 益都縣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⁸⁹⁾ 靑州府는 齊의 중심지답게 이와 관련된 ‘營丘城田文第桓公廟管仲墓’ 등 齊의 고적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다. 기타 堯帝와 관련된 ‘堯山’ 등과 富弼과 范仲淹과 관련된 ‘富相亭范公泉’ 등도 주요 서술 대상이었다. 특히 『孟子』나 『春秋』와 관련된 고적인 ‘雪宮莊嶽里葵丘’ 등에 대해서는 독서의 경험과 밀접한 소재로서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된 내용 중에서 독서경험으로 동명의 장소를 혼동하여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夷齊廟처럼 중요한 대상은 여러 지역의 서술 내용을 보충하여 서술 비중을 높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4. 濟南府의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分析

『大明一統志』에 濟南府는 4州26縣이 있는데, 府治는 歷城縣에 있었다.⁹⁰⁾ 이중 연행 노정상 경유했던 지역은 長山縣鄒平縣章丘縣歷城縣齊河縣禹城縣平原縣德州이다. 『天槎大觀』의 이들 지역에 대한 기록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9)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益都縣’, “在靑州城內而別出者, 以靑州多勝跡也.”

90) 『大明一統志』의 濟南府 소속 州縣은 歷城縣·章丘縣·鄒平縣·淄川縣·長山縣·新城縣·齊河縣·齊東縣·濟陽縣·禹城縣·臨邑縣·長清縣·肥城縣·靑城縣·陵縣·泰安州·新泰縣·萊蕪縣·德州·德平縣·平原縣·武定州·陽信縣·海豐縣·樂陵縣·商河縣·濱州·利津縣·靑化縣·蒲臺縣이다.(『大明一統志』 권 22, 「濟南府」, ‘建置沿革’ 참조)

【도표-4】 濟南府 서술대상과 『大明一統志』 수용양상

지역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연번	대상	항목	수용양상
長山縣	1	長山縣	建置沿革	△	6	登濟咽喉	古蹟	×	11	太湖山	山川	○
	2	仲子故址	古蹟	×	7	漢雍齒墓	古蹟	×	12	長白山	山川	△
	3	王象建第	宮室	×	8	猪龍河橋	關梁	×	13	三陽觀	寺觀	△
	4	董永	人物	◎	9	懷范樓	宮室	◎	14	梓潼山	山川	◎
	5	孝婦河	山川	△	10	范文正公祠	祠廟	◎	15	夾谷山	山川	◎
鄒平縣	1	鄒平縣	建置沿革	△	8	長白山	山川	◎	15	巒山	山川	○
	2	沙河縣	鄉里	×	9	玉皇廟	祠廟	×	16	鳳凰山	山川	◎
	3	張延登花園	宮室	×	10	王母廟	祠廟	×	17	隔馬山	山川	◎
	4	伏生書院	書院	○	11	大峪山	山川	○	18	靑崖山	山川	◎
	5	伏生墓	陵墓	○	12	綉光湖	山川	×	19	方山	山川	◎
	6	伏勝	人物	○	13	割粥斷齋	古蹟	×				
	7	於陵城	古蹟	○	14	體泉寺	寺觀	◎				
章邱縣	1	章邱縣	建置沿革	△	8	洧河 ⁹¹⁾	山川	○	15	百脈泉	山川	○
	2	華山	山川	△	9	繡江橋	關梁	◎	16	樂盤山	山川	○
	3	溧河	山川	○	10	繡江亭	宮室	○	17	龍盤山	山川	○
	4	朝陽橋	關梁	×	11	飲江亭	宮室	○	18	東陵山	山川	○
	5	鄒衍墓	陵墓	○	12	弘濟橋	關梁	×	19	雞山	山川	○
	6	巒堂嶺	山川	○	13	通泰橋	關梁	×	20	湖山	山川	○
	7	女郎山	山川	◎	14	白雲湖	山川	○	21	虎門山	山川	○
濟南府 (歷城縣)	1	濟南府	建置沿革/形勢/風俗	△	14	華不注山	山川	△	27	靜化堂	宮室	△
	2	太甲陵	陵墓	×	15	華泉	山川	△	28	闕武堂	宮室	△
	3	閔子騫墓	陵墓	○	16	舜泉	山川	○	29	黃臺	宮室	△
	4	廟山	山川	△	17	杜康泉	山川	○	30	白雲樓	宮室	○
	5	閔子書院	書院	○	18	北渚亭	宮室	△	31	正覺寺	寺觀	○
	6	趙世卿別業	宮室	×	19	芙蓉橋	關梁	○	32	天心水面亭	宮室	◎
	7	歷山	山川	○	20	歷下亭	宮室	△	33	鮑山	山川	△
	8	歷下城	古蹟	○	21	環波亭	宮室	△	34	龍洞山	山川	○
	9	歷山書院	書院	×	22	水香亭	宮室	△	35	函山	山川	○
	10	趵突泉	山川	△	23	濯纓湖 ⁹²⁾	山川	△	36	奎山	山川	○
	11	大明湖	山川	○	24	百花橋	關梁	△	37	藥山	山川	○
	12	鵲山湖 ⁹³⁾	山川	△	25	百花臺	宮室	○	38	鵲山	山川	△
	13	鵲山亭	宮室	○	26	凝香齋	宮室	○				
齊河縣	1	齊河縣	建置沿革	△	4	黃網店	鄉里	×	7	大清河橋	關梁	×
	2	黃山	山川	○	5	小清河	山川	○	8	倪倫河	山川	×
	3	玉皇殿	寺觀	×	6	大清河	山川	○				
禹城縣	1	禹城縣	建置沿革	△	4	萬善同登	古蹟	×	7	治水臺	古蹟	×
	2	禹城橋	關梁	×	5	泰山行宮	宮室	×				

	3	十安河	山川	×	6	禹廟	祠廟	×				
平原縣	1	平原縣	建置沿革	△	4	東方朔故里	古蹟	△	7	昭烈舊治	古蹟	×
	2	顏真卿故鎮	古蹟	○	5	宋仕神道碑	古蹟	×	8	淳熙寺	寺觀	○
	3	高詡	人物	○	6	望遠臺	宮室	◎	9	繹幕城	古蹟	○
德州	1	德州	建置沿革	△	4	永慶寺	寺觀	○	7	瀛海	山川	×
	2	陳公隄	山川	○	5	蘇祿國王墓	陵墓	○				
	3	衛河	山川	◎	6	十方寺	寺觀	×				

◎ 인용 및 부연 ○ 인용 △ 축약 × 미수록(건문)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濟南府는 산동 지역의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된 항목 이외에 ‘名宦·流寓·仙釋’과 관련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⁹⁴⁾ 長山縣·鄒平縣·章丘縣·齊河縣는 縣治 외곽의 ‘산천’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고, 德州는 운하와 관련된 ‘산천’ 서술의 비중이 높다. 濟南府 (歷城縣)은 府城의 호수와 인근의 명산을 중심으로 ‘산천’과 ‘궁실’에 대한 서술이 비중이 높다. 平原縣은 인물과 관련된 ‘고적’에 대한 서술 비중이 높고, 禹城縣은 건치연혁 이외에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濟南府 전체적으로는 ‘산천·궁실’의 서술 비중이 높다. 대표

- 91) ‘濟河’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 92) ‘濯纓河’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 93) ‘鵲山河’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 94) 濟南府에 대한 『大明一統志』受容樣相 分析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지역	建置沿革				山川				書院				宮室				關梁				寺觀			
	◎	○	△	×	◎	○	△	×	◎	○	△	×	◎	○	△	×	◎	○	△	×	◎	○	△	×
長山縣			1		2	1	2					1			1					1			1	
鄒平縣			1		5	2	1		1						1					1				
章丘縣			1		1	11	1					2			1		1		3					
歷城縣			1			8	8		1	1	1	4	7	1	1	1	1				1			
齊河縣			1			3	1										1						1	
禹城縣			1				1								1		1							
平原縣			1									1											1	
德州			1		1	1	1														1		1	1
소 계	0	0	8	0	9	26	11	4	0	2	0	1	3	6	7	4	1	1	1	6	1	3	1	2
합 계			8			50				3				20				9				7		

적으로 ‘大明湖’와 ‘衛河’에 대한 『天槎大觀』의 서술과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자.

모든 샘들이 성으로 흘러들어 합해져서 大明湖가 되는데, 그 크기는 府城의 1/3을 차지한다. 曾鞏의 시에 “호수면 평평하고 갈대언덕 긴데, 푸른 하늘의 드리워진 그림자는 맑은 빛의 호수에 들었네. 한 줄기 시내의 바람과 이슬에 연꽃은 뚜렷하고, 6월의 蓬萊와 瀛洲라서 잔치 자리는 청량하네. 창해에 뗏목 띄우니 드넓은 풍경 펼쳐지고, 맑은 은하로 뗏목타고 거슬러 오르니 더욱 아득해지네. 무엇하러 고생스레 인간세상 밖에서 구할까? 본래 선경은 수향에 있다네.”라 하였다. 大明湖가 북쪽 성을 나와서 합하여 鵲山河가 된다. 아득하게 물가가 보이지 않아서 멀리 보이는 華不注山이 마치 호수 가운데 있는 듯 했으니, 대개 歷下城의 絶勝處였다. 李白의 泛湖詩에 “호수는 넓어 수 천리인데, 호수의 물빛에 푸른 산이 일렁이네. 호수 서편에 때마침 달은 떠있건만, 홀로 李膺을 전송하고 돌아오네.”라고 하였다. 동북으로 흘러서 濟河로 들어간다. 또한 西湖라고도 명명된다.⁹⁵⁾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大明湖’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서술한 것

항목 지역	祠廟			陵墓			古蹟			人物			鄉里			합계			
	◎	○	△	◎	○	△	◎	○	△	◎	○	△	◎	○	△				
長山縣	1							3	1							15			
鄒平縣			2	1			1	1	1						1	19			
章丘縣				1												21			
歷城縣				1	1		1									38			
齊河縣															1	8			
禹城縣			1					2								7			
平原縣							2	1	2	1						9			
德州				1												7			
소 계	1	0	0	3	0	4	0	1	0	4	1	8	1	2	0	0	0	0	2
합 계	4			5			13			3			2			124			

95)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濟南府’, “諸泉入城, 匯爲大明湖, 其大占城三之一. 曾鞏詩, 湖面平隨葦岸長, 碧天垂影入清光. 一川風露荷花曉, 六月蓬瀛燕坐涼. 滄海桴浮成蕩曠, 明河槎上更微茫. 何須辛苦求人外, 自有仙鄉在水鄉. 湖出北城, 匯爲鵲山河. 瀾漫無渚, 遙望華不注, 若在水中, 蓋歷下絶勝處. 李白泛湖詩, 湖闊數千里, 湖光搖碧山. 湖西正有月, 獨送李膺還. 流東北入于濟, 又名西湖.”

이다.⁹⁶⁾ 그런데 중간에 인용된 李白의 泛湖詩는 ‘鵲山湖’에 대한 작품이다.⁹⁷⁾ 『大明一統志』를 근거로 살펴볼 때, 鵲山河는 원래의 명칭이 ‘灤水’이고, 호수의 명칭은 ‘鵲山湖’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湖出北城, 滙爲鵲山河”는 『大明一統志』의 ‘鵲山湖’ 중 “自大明湖東北流, 注華不注山下, 彙爲鵲山湖.”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며, “流東北入于濟”도 『大明一統志』의 ‘鵲山湖’ 중 “又東北入於濟”를 변형한 것이다.

이는 『大明一統志』의 서술 내용을 大明湖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李白 詩의 인용오류처럼 명백한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점은 『天槎大觀』의 간행 과정에서 교감이 불충분했음을 보여준다.

서편으로 衛河가 있다. 본래 衛河·漳河·黃河 등 여러 강들이 합류하는데, 東昌府 武城縣의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河間府 경계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동쪽과 남쪽의 조운·장사치·나그네·지방관·조공단이 모두 여기를 경유한다. 元나라 때에 개착되었고, 永樂帝 때에 다시 준설했다. 탁류 한줄기가 넓이는 십여장 가량이고, 깊이는 2~3장 가량이다. 오고 가는 커다란 배들이 밤낮 나루에 아득했는데, 남과 북으로 가는 배들은 모두 돛대 머리에 밧줄을 매어 曳船했다.⁹⁸⁾

96) 『大明一統志』 권22, 「濟南府」, 「山川」, “大明湖, 在府城內西北隅. 源出舜泉, 其大占府城三之一. 由北水門, 出與濟水合. 彌漫無際, 遙望華不注峯, 若在水中, 蓋歷下城絕勝處也. 又名西湖. 宋曾鞏詩, 湖面平隨葦岸長, 碧天垂影入清光. 一川風露荷花曉, 六月蓬瀛燕坐涼. 滄海桴浮成曠蕩, 明河槎上更微茫. 何須辛苦求人外, 自有仙鄉在水鄉.”

97) 『大明一統志』 권22, 「濟南府」, 「山川」, “鵲山湖, 郡志灤水, 自大明湖東北流, 注華不注山下, 彙爲鵲山湖. 又東北入於濟, 僞齊劉豫自城北導之. 東行爲小清河, 而水不及鵲山湖矣. 唐李白泛湖詩, 湖闊數千里, 湖光搖碧山. 湖西正有月, 獨送李膺還.”

98)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德州’, “西有衛河. 本衛漳黃河諸水合流, 自東昌府武城縣界入境, 北經河間府界入海. 東南漕運, 商賈賓旅, 與凡外吏朝貢, 皆由於此. 元時開鑿, 永樂時又濬. 濁流一帶, 廣可十餘丈, 深可二三丈. 來去舸艦, 日夜迷津, 南者北者, 皆櫓頭繫索曳之.”

위 글은 『大明一統志』의 ‘衛河’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부연한 것인데, ‘皆由於此’까지는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⁹⁹⁾ 이후로는 少痊이 衛河의 중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衛河는 京杭大運河 중의 일부로 ‘漕河’라고도 한다. 연행단이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하여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衛河를 따라 天津府를 경유해서 북경으로 향했기 때문에, 德州의 衛河는 해로 연행 노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기처였다.¹⁰⁰⁾ 위 글을 통해서 少痊은 衛河와 관련된 핵심적인 전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장관으로서의 소임이 충실히 반영된 서술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天槎大觀』에서 濟南府는 124개의 항목이 서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93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濟南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유하는 현이 많았다. 舜帝와 관련된 ‘廟山歷山’ 등과 范仲淹 독서처와 관련된 ‘醴泉寺巒山’ 등도 중요 관심 대상이었지만, 주로 ‘大明湖趵突泉華不注山’ 등 절경과 관련된 서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大明湖를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호수와 샘 및 궁실과 교량에 대한 서술이 많다. 또한 濟南府는 명승과 절경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풍경시도 많아서, 曾鞏·李白·杜甫·趙孟頫·孔平仲·任詢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풍부하게 인용된 특징을 보인다. 다만 인용시 중에서 節錄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요약된 서술을 위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인용된 내용 중에서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부 다른 내용이 혼재되는 사례가 보였다. 이는 『天槎大觀』이 충분한 교감을 거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99) 『大明一統志』 권22, 「濟南府」, ‘山川’, “衛河, 在德州城西. 本衛漳黃河諸水合流, 自東昌府武城縣界入境, 北經河間府界入海. 東南漕運, 商賈賓旅, 與凡外吏朝貢, 皆由於此.”

100) 洪翼漢, 『朝天航海錄』 권1, 甲子年 10月 1日(壬午), “衛河一名漕河. 南京及湖廣諸省之所漕引, 而北直隸通州江南, 浮下天津衛, 故往來于茲者, 夏澇則不得由旱路, 乘船而行.”

IV. 『天槎大觀』의 敘述上 特徵

해로 여행기의 산동 육로 노정은 고대 齊와 趙의 강역을 경과하는 노정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독서를 통해 익숙한 지역이었다. 月沙가 花浦의 해로 여행을 전승하는 글에도 이러한 정황이 잘 표현되었다.¹⁰¹⁾ 다만 연행사들이 현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서술할 때에는 본인들의 견문과 더불어 지리지를 참고해서 서술하곤 했다. 앞장에서 『天槎大觀』도 『大明一統志』를 적극 수용했음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天槎大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도본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순서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도본의 구도와 표현양상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濰縣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료-2】 明萬曆 濰縣境圖와 燕行錄의 濰縣圖

明萬曆 濰縣境圖 및 서술순서	朝天記地圖-濰縣圖	航海朝天圖-濰縣圖(부분)

위 그림은 明萬曆 32년(1604)에 간행된 『萊州府志』 중에서 「濰縣境圖」와 壺亭의 『朝天記地圖』 및 花浦 일행의 여행을 그린 『航海朝天圖』 중에서 濰縣圖이다.

101) 李廷龜, 『月沙先生集』 권40, ‘送賀至書狀官洪澤遠序’, “泊于登州, 觀日出於蓬萊之閣, 探之罽漢帝之遊, 問阜鄉秦皇之迹, 銅井珠巖, 讀唐宗坡翁之詩. 以至濟南人才之藪, 鄒魯聖賢之鄉, 青齊, 即墨, 稷下, 淄澠之盛, 古跡之可觀者, 不可殫記.”

우선 원편의 「濰縣境圖」는 『天槎大觀』의 濰縣에 대한 서술 내용 중에서 지도에서 확인되는 ‘① 濰縣→② 八角池→③ 濰水→④ 白浪河→⑤ 東丹河→⑥ 西丹河→⑦ 流飯橋→⑧ 几山→⑨ 麓臺’¹⁰²⁾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다. 『天槎大觀』의 濰縣에 대한 서술을 보면 먼저 건치 연혁을 설명하고,¹⁰³⁾ 외곽의 지리 정보를 설명해서 治所를 중심으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설명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순서는 『天槎大觀』의 다른 지역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내용을 『大明一統志』의 순서대로 제시하면, “① 濰縣→⑧ 几山→④ 白浪河→⑤ 東丹河→⑥ 西丹河→③ 濰水→② 八角池→⑨ 麓臺→⑦ 流飯橋”순으로,¹⁰⁴⁾ 내용 구분 항목에 따라 서술되었기 때문에 『天槎大觀』의 서술 순서와 상이하다. 이는 『天槎大觀』의 도설이 도본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감상자의 시선과 여행단의 동선에 따른 서술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왼쪽과 가운데 그림은 지도로 오른편의 『航海朝天圖』와 구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지도는 해당 지역의 治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반면 『航海朝天圖』는 縣治가 동쪽 편에 치우쳐있는데, 이러한 구도에서는 縣治 동편의 ‘八角池·濰水·白浪河·東丹河’는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天槎大觀』과 『航海朝天圖』는 구도가 상이했음을 알 수 있다.

『天槎大觀』 도본의 구도와 표현양상을 추정해 보면, 도설의 내용에

-
- 102) ‘丹河’는 ‘于河’로 표기되기도 해서 통용되는 지명이다. 流飯鋪는 流飯橋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대의 지도에는 필자가 표시한 곳에 流飯橋가 있다.
- 103) 濰縣은 縣治에 대한 추가 서술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 府治나 臨淄縣 등에서 治所에 대한 여러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 104) 濰縣에 대한 『천사대관』의 전체 수록내용을 『大明一統志』의 수록순서로 재편하면 “濰縣→几山→白浪河→東丹河→西丹河→濰水→八角池→靖共堂→麓臺→流飯橋→孔融廟→平壽城→寒亭→觀亭→孔融→王烈→王裒”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 治所를 중앙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산천·궁실·고적’ 등을 묘사하
 되, 경물의 승경과 도읍의 변화함을 회화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¹⁰⁵⁾ 특
 히 少痊은 花浦 일행과 회동관에서 여러 날을 함께 보냈다. 이때 『航海
 朝天圖』를 열람하고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서 『天槎
 大觀』의 도본은 지도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되, 그림의 회화성은 花浦 일
 행의 『航海朝天圖』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⁶⁾

두 번째로 少痊이 漢族 王朝 正統論을 견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
 치연혁이나 인물 등을 서술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민족 왕조의 설명을 생
 략한 경우가 자주 확인되는데, 특히 모든 지역의 건치연혁과 ‘인물·명환’
 의 인용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黃縣’의 건치연혁을
 살펴보자.

漢代의 구현은 동래군 소속이었는데, 현치는 현재 현의 동쪽 25리에 있었다.
 北齊 때에 현재의 치소로 옮겼는데, 隋代에도 그것을 따랐다. 唐宋 및 元代에는
 모두 등주에 소속되었고, 本朝에서도 그것을 따랐다.¹⁰⁷⁾

漢代에는 동래군 소속이었는데, 唐宋代에는 모두 등주 소속이었고, 大明에서
 는 그것을 따랐다.¹⁰⁸⁾

위 글을 통해서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天槎大觀』이 생략하고 요약
 해서 간략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도설의 성격상
 요약된 서술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北齊隋

105)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天槎大觀 并序’, “則是圖也非特爲燕齊景物之勝, 都邑繁華之蹟也.”

106) 『航海朝天圖』중에서 燕京圖가 이러한 구도로 구성되었다. 최근 개인 소장본 『坐觀荒紘』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天槎大觀』 圖本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비정 연구를 진행 중임을 밝힌다.

107) 『大明一統志』 권25, 「登州府」, ‘建置沿革’, “漢舊縣屬東萊郡, 其治在今縣東二十五里. 北齊徙今治, 隋因之. 唐宋及元俱屬登州, 本朝因之.”

108) 金德承, 『天槎大觀』 권2, ‘黃縣’, “漢屬東萊郡, 唐宋俱屬登州, 大明因之.”

元’ 王朝의 건치연혁이 생략되었는데, 모두 이민족 왕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天槎大觀』의 기타 지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大明一統志』의 인물이나 명환을 인용한 사례를 보면, 周代의 ‘成胤·王蠋·田單·晏嬰’, 漢代의 ‘伏勝·東方朔·高詡·孔融·董永·王褒·董仲舒’, 唐代의 ‘顏真卿’, 宋代의 ‘李成·王曾·蔡齊·范仲淹’ 등이다. 모두 경과 지역의 한족 왕조 출신 인물이나 명환만을 인용하고 있다.

당시 조선은 명에 대해서 보은의식이 있었고,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後金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강했다. 少痊도 명과 後金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태도를 갖고 있었고, 이것이 『天槎大觀』의 서술에도 반영되면서, 이민족 왕조나 그 시기의 인물이나 명환 등에 대한 인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航海朝天圖』계열의 제작 목적 중에서 ‘對明 義理論’의 표출도 있었던 점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⁰⁹⁾

세 번째로 견문 대상으로 牌樓와 橋梁의 서술이 많은 편이다. 이는 少痊이 명확한 이정표가 되면서 인문지리의 설명에 적합한 소재로 패루와 교량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이다.

패루는 주로 고적을 알려주는 건축물로 편역의 문구는 그 특징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며, 명확한 이정표의 역할도 한다. 『大明一統志』의 고적에 대한 서술이 이와 관련이 깊지만 직접적인 서술은 없다.¹¹⁰⁾ 따라서 『天槎大觀』의 패루와 관련된 서술은 『大明一統志』의 미흡한 서술을 보충하기 위해 부연된 少痊의 견문이다. 다만 『天槎大觀』에서는 패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현계의 동쪽 표문은 ‘渤海襟喉’였다. 그 서쪽 王白店의 마을 편액은 ‘營邱舊封’이었으니 이곳은 강태공이 봉해진 곳이다.¹¹¹⁾

109)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pp.117-119 참조.

110) 平原縣의 ‘顏真卿故鎮·東方朔故里’만 패루에 편역된 고적의 서술이다.

② 현의 남관에 ‘齊封初地’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昌樂縣이 본래 營邱의 封地인 것이다.¹¹²⁾

③ 縣界의 동편에 ‘於陵仲子故址’가 있었으니, 제나라 巨擘이요, 청렴한 선비였다.¹¹³⁾

위 글 중에서 ①과 ②는 패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술인데, 壺亭의 『朝天記地圖』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¹¹⁴⁾ ③은 내용상 패루와 관련된 서술로, 『航海朝天圖』의 ‘長山縣圖’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패루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고적과 관련된 패루일 경우는 그 문구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서경험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과 ②처럼 ‘標○○·額○○·揭○○’의 형식으로 서술되었을 경우 대부분 패루와 직접 관련 있는 서술인데, 『朝天記地圖』처럼 통일된 형식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다. ③은 고적을 소개하는 형식인데, 『大明一統志』에 그 내용이 없지만 『航海朝天圖』에 이와 관련된 패루가 확인된다. 따라서 少痊은 패루와 견문 등을 통해서 얻게 된 지역의 정보를 서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有○○’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처럼 少痊을 포함한 당시 여러 연행사들은 패루가 갖는 이정표로서 효용성에 주목했다. 패루는 『大明一統志』에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는

111)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濰縣’, “界東標, 渤海襟喉. 其西王白店間, 額營邱舊封, 是太公所封處也.”

112)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昌樂縣’, “縣之南館, 揭齊封初地, 昌樂, 本營邱地也.”

113) 金德承, 『少痊公文集』 권2, ‘長山縣’, “界之東, 有於陵仲子故址, 齊之巨擘廉士也.”

114) 鄭斗源, 『朝天記地圖』, ‘昌邑縣圖’, “行三十里, 有欄門, 書之曰 渤海襟喉. … 行五十里, 有欄門, 書之曰 營丘舊封, 昔姜太公所封之地.”; “行一里, 有欄門, 書之曰 齊封初地, 太公初封之處.”

세부 내용이지만 편역의 문구를 통해 연행사들의 독서경험과 연계해서 해당 지역의 인문지리를 설명하기에는 최적의 소재였다. 이는 壺亭의 『朝天記地圖』의 서술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며,¹¹⁵⁾ 『航海朝天圖』에서도 패루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재확인 된다.

패루와 더불어 교량에 대한 서술도 많은 편이다. 교량은 지리에서 중요성을 갖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大明一統志』에서도 내용 분류의 한 항목이다. 『天槎大觀』에서도 경과하는 지역의 교량에 대해서 『大明一統志』에 수록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되어 있고, 수록되지 않은 교량의 건물 내용도 다수 서술되었다.

규모가 있는 교량에는 석비가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현존하는 교량을 보면 입구에 이러한 석비들이 확인된다.¹¹⁶⁾ 패루의 편역과 마찬가지로 교량의 석비는 해당 지역의 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정확한 이정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3】 『航海朝天圖』의 牌樓와 橋梁관련 踏查寫眞

航海朝天圖-長山縣 牌樓	段家橋 石碑의 龜趺-阜城縣	琉璃橋의 石碑-良鄉縣

115) 신춘호, 「명·청 교체기 海路使行 路程의 인문정보 일고」, 『韓國古地圖研究』 제8권 제1호, 2016, p.49 참조.

116) 洪翼漢, 『朝天航海錄』 권1, 甲子年 10月 10日(辛卯), “北行二十里, 有琉璃橋, 宏壯優於涿河橋. 橋邊有大屋, 屋中有龜背大碑, 正德年間, 奉勅發內帑重修, 而實元朝所創也.”

이상으로 『天槎大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天槎大觀』은 도본의 설명이 용이하도록 감상자의 시선과 연행단의 동선을 고려하여 서술되었다. 두 번째로 당시 後金의 세력이 강성해 지고, 明은 국운 말기의 부정부패가 만연했음에도 漢族 중심의 문명론이 뚜렷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지리정보의 보강을 위해서 패루와 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天槎大觀』처럼 도본과 도설로 구성된 연행록 중에서 壺亭의 『朝天記地圖』가 대표적인데, 『大明一統志』를 적극 수용하여 서술한 점도 『天槎大觀』과 유사하다. 따라서 『朝天記地圖』가 『天槎大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화성이 뚜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天槎大觀』의 도본에 비하여 『朝天記地圖』의 도본은 회화성이 부족하다. 반면 노정과 견문내용에 대한 『天槎大觀』의 도설에 비해 『朝天記地圖』의 도설은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수록된 차이가 보인다.

해로 연행 노정은 1629년 이후로 袁崇煥에 의해서 北汎口에서 바로 覺華島로 연결되는 노정으로 변경된다.¹¹⁷⁾ 그런데 이 노정을 이용한 연행록은 견문과 소회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고, 도본은 전별도만 확인된다.¹¹⁸⁾ 이는 해로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간은 이미 익숙한 지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로 연행록이 지리지적 서술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登州 노정을 왕환했던 연행록으로 한정되는 특징이다.

117)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10, pp.287-289 참조.

118) 김지현, 「17세기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화와 예술』 제15집, 2015, pp.23-26 참조. 1633년 해로 연행의 전별도인 『世傳書畫帖』이 있지만, 이 화첩은 연행의 노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별에 중심이 있다.

V. 結論

본고는 少菴 金德承(1595~1658)의 『天槎大觀』중 山東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과 그 서술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少菴의 1624년 동지사행은 後金에 의해 차단된 육로를 대신해서 해로로 다녀온 연행으로, 정기사명의 수행이 주목적이었다. 少菴은 당시 해로 연행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고 清廉無慾한 태도로 일관해서, 귀국 후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 또한 『天槎大觀』을 저술해서 후대 연행사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天槎大觀』은 少菴이 1625년 2월 하순에 會同館에서 저술했는데, 도본과 도설로 구성되었으며, 경유한 노정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데,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했다. 다만 말미에 첨부된 ‘前後航海路程’은 문집을 간행할 때 『通文館志』를 참고하여 부연 설명한 것으로, 『天槎大觀』의 원래 내용은 아니다.

『天槎大觀』의 『大明一統志』수용양상을 분석해 보면, 우선 登州府는 45개의 항목 중에서 4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登州府의 주요한 서술 내용을 보면, 登州府를 ‘神仙·蘇軾의 文學’과 연관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인용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필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誤記나 通假 사례도 확인되었고, 인용과 견문의 서술상 경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萊州府는 65개의 항목 중에서 52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는데, 萊州府의 주요한 서술 내용을 보면, 萊州府는 登州府에 비해서 유학과 연계된 서술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呂祖謙을 배향한 ‘東萊書院’의 서술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天槎大觀』이 『大明一統志』의 내용을 폭넓게 참고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靑州府는 90개의 항목 중에서 70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靑州府는 齊의 중심지로서 그 고적에 대한 서술이 많았고, 『孟子』나

『春秋』와 관련된 고적인 ‘雪宮·莊嶽里·葵丘’ 등에 대해서는 독서의 경험과 밀접한 소재로서 관심이 높았다. 또한 인용된 내용 중에서 독서경험으로 동명의 장소를 혼동하여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夷齊廟’처럼 중요한 대상은 여러 지역의 서술 내용을 보충하여 서술 비중을 높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濟南府는 124개의 항목 중에서 93개의 항목이 『大明一統志』를 수용했다. 濟南府는 명승과 절경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풍경시도 많아서, 曾鞏·李白·杜甫·趙孟頫·孔平仲·任詢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풍부하게 인용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인용된 내용 중에서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부 다른 내용이 혼재되는 사례가 보였다. 이는 『天槎大觀』이 충분한 교감을 거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된다.

『天槎大觀』의 서술상 특징으로, 우선 도본의 설명이 용이하도록 시선과 동선을 고려하여 서술되었다. 두 번째로 漢族 중심의 문명론이 뚜렷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지리정보의 보강을 위해서 패루와 교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天槎大觀』의 체제는 壺亭의 『朝天記地圖』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화성이 뚜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天槎大觀』의 도본에 비하여 『朝天記地圖』의 도본은 회화성이 부족하다. 반면 노정과 건물내용에 대한 『天槎大觀』의 도설에 비해 『朝天記地圖』의 도설은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한 차이가 보인다.

해로 연행록 중에서 『天槎大觀』처럼 지리지적 서술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1629년 이후로 北汎口에서 바로 覺華島로 연결되는 노정을 왕환했던 연행록은 건물과 소회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고, 전별도 1부만 전해진다. 이는 해로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간은 이미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로 연행록이 지리지적 서술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登州 노정을 왕환했던 연행록으로 한정되는 특징이다.

본고에서 『天槎大觀』의 山東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 『大明一統志』의

수용양상을 분석하다보니, 기타 지역에서 분석 내용과 다른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市北 南以雄(1575~1648)의 『路程記』가 『天槎大觀』과 내용과 체제에서 거의 동일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拙稿에 대해서 제현의 질정을 기다리는 바이다.

<參考 文獻>

1. 원전자료

『孟子集註』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春秋左傳』

『通文館志』(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大明一統志』(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萊州府志』

金德承, 『少痊集』(한국문집총간 속26집)

金宗直, 『佔畢齋集』(한국문집총간 12집)

李肯翊, 『燃藜室記述』(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李承召, 『三灘集』(한국문집총간 11집)

李廷龜, 『月沙集』(한국문집총간 69~70집)

吳 翹, 『天坡集』(한국문집총간 95집)

鄭斗源, 『朝天記地圖』(燕行錄選集 補遺 上)

趙 綱, 『龍洲遺稿』(한국문집총간 90집)

洪翼漢, 『朝天航海錄』(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2. 단행본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10.

楊正泰, 『明代驛站考』, 上海古籍出版社, 2006.

3. 논문자료

김영숙, 「명말의 중국사회와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 『명청사연구』 31집, 明清史學會, 2009.

-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제1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5.
- 劉寶全, 「花川 趙戩의 燕行과 한시 창작」, 『東方漢文學』 第52輯, 東方漢文學會, 2012.
- 박경은,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 『漢文教育研究』 15집, 韓國漢文教育學會, 2000.
- 박현규, 「17세기 전반 대명 해로사행의 운항과 풍속 분석」, 『韓國漢文學研究』 제48집, 韓國漢文學會, 2011.
- _____, 「17세기 전반기 대명 해로사행에 관한 행차 분석」, 『韓國實學研究』 제21집, 韓國實學學會, 2011.
- 배주연, 「명청교체기 조선 문사 이안눌의 명 사행시 연구」, 『比較文學』38집, 韓國比較文學會, 2006.
- 서지원, 「鄭斗源의 <朝天記地圖>에 나타난 대외인식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제17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5.
- 송기현, 「이흥의 연행과 여행록 조천일기의 관광학적 고찰」, 『觀光産業研究』 제3권 1호, 靑雲大學校 觀光産業研究所, 2009.
- 신춘호, 「명청 교체기 海路使行 路程의 인문정보 일고」, 『韓國古地圖研究』 제8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6.
- 이성형, 「鶴峯 金誠一 燕行詩의 載道的 意境 考察」, 『漢文學論集』 제40집, 槿域漢文學會, 2015.
- 이영춘, 「병자호란 전후의 조선명청 관계와 김육의 『조경일록』」, 『朝鮮時代史學報』 38집, 朝鮮時代史學會, 2006.
- 이정숙, 「설정 이흥의 『조천일기』 구두점과 주해 연구」, 청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영걸, 「壺亭 鄭斗源의 『朝天記地圖』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 연행록」, 『韓國實學研究』 제9집, 韓國實學學會, 2005.
- 정영문, 「오윤겸의 사행일기 연구」, 『溫知論叢』 第47輯, 溫知學會, 2016.
- 정은주, 『명청교체기 대명 사행기록화 연구』, 『명청사연구』 제27집, 明清史學會, 2007.

- 조규익, 「使行路程으로서의 登州, 그 心象空間的 性格과 意味」, 『어문연구』 제38집 4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10.
- _____, 「『죽친행록』의 사행문학적 성격」,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 조창록, 「1636년의 해로 사행과 李晩榮의 『崇禎丙子朝天錄』」, 『인문과학』 제47집, 成均館大學校人文科學硏究所, 2011.
- _____, 「전식의 사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東方漢文學』 46집, 東方漢文學會, 2011.
- _____, 「1632년의 해로사행과 洪鎬의 『朝天日記』」, 『溫知論叢』 第42輯, 溫知學會, 2015.
- 최윤정, 「명청교체기 조선 문사의 사행체험」, 『한국고전연구』 1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崔昌源, 「『雪汀先生朝天日記』에 나타난 使臣들의 行蹟」, 『中國語文學論集』 第67號, 中國語文學硏究會, 2010.
-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韓國漢文學硏究』 第43輯, 韓國漢文學會, 2009.
- 허경진·최해연, 「명청교체기 최초의 수로조천록」, 『中國學論叢』 34집, 韓國中國文化學會, 2011.
- 황만기, 「청음 김상헌 『조친록』 고찰」, 『韓國漢文學硏究』 第43輯, 韓國漢文學會, 2009.

4.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Abstract

*Consideration on Accepting Aspect of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of 'Cheonchadaegwan(天槎大觀)' - Focused on Inland Section of Shandong(山東) / Lee Soung-hyung**

Main objective of winter envoy travel of Sojeon(少痊) Kim Deok-seung(金德承) (1595-1658) was to perform regular envoy duty and at this time, Sojeon(少痊) was praised for his upright and unselfish attitude. 'Cheonchadaegwan(天槎大觀)' being composed of drawing and its description was written at Hoedonggwangwan(會同館) at last ten days of May, 1625 and it accepted contents of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faithfully. However, 'before/after sea route journey' at its end contains contents of additionally explaining 'Tongmun Gwanji(通文館志)' by referencing it.

When analyzing accepting aspect of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of 'Cheonchadaegwan(天槎大觀)', first, in case of Deungjubu(登州府), 40 items among 45 items accepted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and a tendency of trying to recognize Deungjubu(登州府) by associating it with 'literature of Shinsan(神仙), Sosik(蘇軾)' could be seen. In addition, among the quoted contents, a case of wrong record or Tongga(通假) was confirmed and descriptive boundary between citation and experience was not clear as well.

In case of Raejubu(萊州府), 52 items among 65 accepted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and its weight being linked with confucianism was high and descriptive omission for 'Dongrae Seowon(東萊書院)' is presumed to be omitted word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heonchadaegwan(天槎大觀)' referenced contents of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broadly. In case of Chungjubu(青州府), 70 items among 90 accepted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and it was center of Je(齊) Dynasty and descriptive weight for such historical remains was the highest. A case of confusingly recognizing

* Adjunct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great-one@hanmail.net

'Gyugu(葵丘)' that is a place of same name by reading experience was found and in case of important target like 'Eejemyo(夷齊廟)', descriptive weight was increased by supplementing contents of several regions.

In case of Jenambu(濟南府), 93 items among 124 accepted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and as it has many magnificent scenic sites, citation of scenic poem was abundant than other regions. In addition, as a case of being mixed with certain other contents was found when arranging contents based on specific item like 'Daemyeongho(大明湖)', it could be realized that 'Cheonchadaegwan(天槎大觀)' failed to pass through sufficient historical research.

A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Cheonchadaegwan(天槎大觀)', first, it was described by considering visual and traffic line in order to ensure easy drawing explanation. As a next one, Chinese based civilizational theory was prominently clear. Finally, in order to reinforce accurate geographical information, concern over pailou and bridge was also high.

Among travel assays to Qing Dynasty being composed of drawing and its explanation like 'Cheonchadaegwan(天槎大觀)', it seems that 'Chocheongi Map(朝天記地圖)' of Hojeong(壺亭) Chung Du-won(鄭斗源, 1581-1642) was affected by 'Cheonchadaegwan(天槎大觀)'. In addition, among such assays during Ming, Qing Dynasty transition period, geographical description could be seen like 'Cheonchadaegwan(天槎大觀)' and this is characteristics being limited to such travel assay of shuttling Deungju(登州)journey.

【Key words】 Sojeon(少痊), Kim Deok-seung(金德承),
Cheonchadaegwan(天槎大觀), Daemyeong
Iltongji(大明一統志), Hanghae Chocheondo(航海 朝天圖),
Chocheongi Map(朝天記地圖), Travel assay to Qing
Dynasty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